

외국인도 반한 강진 청자축제 ‘대박났네’

매출·방문객 역대 최고 기록
도자기 할인 판매·경매 등 인기

제42회 강진 청자축제가 제12호 태풍 ‘나크리’의 영향으로 하루를 앞당겨 폐막을 했지만 관광객 수 및 매출액은 지난해에 비해 증가하는 대박을 터트렸다.

5일 강진군에 따르면 전국적인 ‘세월호’ 참사 애도 분위기와 계속된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폐막을 하루 앞둔 지난 2일까지 27만명이 찾아 24만명이 방문했던 전년대비 13% 증가세를 보였다. 청자 판매액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자 판매액은 지난해(5억5000여만원)보다 15% 증가한 6억3000여만원이었고, 28개 민간요 업체 판매액도 지난해(4억4000여만원)보다 9% 증가한 4억8000여만원에 달했다.

이번 청자축제는 ‘한·중·일 도자문화 축제’와 함께 열려 글로벌 축제로 이끄는 한편 축제를 활성화시키는 촉매제가 됐다. 한국의 명품 청자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접하기 어려웠던 자기까지 비교적 저렴하고 원산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축제기간 동안 강진 명품청자를 35% 할인 판매 했으며, 명품청자 판매관에서는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특별 이벤트 존’도 운영했다.

1회에 15명씩 매일 3회 추첨을 통해 명품청자 판매관에서 청자를 구매할 수 있도록 1인당 3만원 상당의 경품권을 제공했고 즉석경매도 매일 3회 진행했다. 이 경



‘제42회 강진 청자축제’ 행사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관계자로 부터 작품 설명을 듣고 있다. 강진군은 태풍 ‘나크리’의 북상으로 축제기간(7월~8월 3일)을 하루 단축해 폐막했다. <강진군 제공>

매는 정상 판매가에서 50% 할인로 시작해 ‘호가경매(呼價競賣)’ 방식으로 진행돼 호응을 이끌었다.

올해는 19개 체험행사에 관광객이 몰렸다. 지난해보다 23% 증가하면서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체험 위주의 축제로 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청자축제의 성공은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을 줬다. 강진읍과 청자촌에 가까운 마량면 등 23개 숙박업소 객실 597개의 객실이 모두 꽉 찼고, 많은 관광객은 이웃 강흥군 등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청자쿠폰 판매를 조기 완료하고 스포

츠 행사와 전시, 공연과 연계 강진 곳곳에 파급효과를 미쳐 ‘수익영영형 축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진 청자축제는 지난 1997년부터 2013년까지 연속으로 국가 지정 집중육성 축제, 대표축제, 최우수 축제 등으로 선정됐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녹동농협-서서울농협 상생·협력 자매결연

고흥 녹동농협(조합장 양수원)과 서(西)서울농협(조합장 조원민)은 최근 녹동농협 대회의실에서 각급기관 단체장과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을 맺었다. <사진>

양 농협은 ‘상생협력과 같이의 가치’라는 슬로건 아래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시·농촌간 소득격차 심화, FTA 확대 등 새로운 경영환경의 변화와에 상생·협동·혁신으로 농업인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자매결연을 했다.

서서울농협 조원민 조합장은 “좋은 인연이 돼 양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연결고리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녹동농협 양수원 조합장은 “생산지 농업과 소비자 농업의 협력으로 농산물 판매



증진에 힘써 서로가 농업·농촌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더 많은 역할을 해 나가리라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서울농협은 서울시 종로구와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에 본점 외 13개 지점과 5개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산규모가 1조2000억원이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여수 거북선호’ 야간 운항 재개 촉구 잇따라

세월호 이후 중단된 ‘여수 거북선호’의 야간운항 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수시와 여수시의회, 여수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주요 기관·단체장 7명은 최근 ‘여수 거북선호 야간운항 재개’를 강력히 건의하고 야간운항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공식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여수시의회도 촉구 결의문을 발표한 데 이어 문화체육부 주관 시·도 관광국장 회의에서도 필요성을 호소하는 등 ‘여수거북선호’의 야간운항 재개를 촉구했다.

앞서 여수 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 2010년 정월 306명 규모로 건조해 오토도와 돌산대교를 운항하는 여수 거북선호(426t)

의 야간 운항을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관리 문제를 들어 중단시켰다.

이 때문에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관광업계 전반에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수시는 이번 공식 건의에 대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선박 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선박 검사와 점검, 시설 보완·배치 등의 안전 조치를 완료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휴가철과 관광 성수기를 맞아 많은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여수밤바다의 낭만을 선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여수 거북선호’의 야간운항을 반드시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전북 소식

정읍 ‘방사선 의료 관리센터’ 건립 추진

2016년까지 첨단 과학산단내 기술 개발·치료 효율성 개선

방사선 의료기기 안전성 향상 등을 위한 ‘방사선 의료 정도관리센터’가 오는 2016년 정읍시 신정동 일원 첨단 과학산업단지에서 세워진다.

정읍시와 한국방사선진흥협회(이사장 이명철, 이하 협회)가 5일 ‘방사선 의료 정도관리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1만㎡의 부지 매입에 따른 시비를 확보해 지원하고, 센터 설립에 필요한 국비확보와 행정절차 이행에 적극 협력한다.

또 협회는 센터 설립계획에 따라 연차별 사업비(국비) 확보와 함께 시로부터 부지 매입을 위한 시비가 지원되면 부지 매입 및 시설설계비용 등을 거쳐 본격적

인 설립공사를 담당하게 된다.

센터는 올해부터 2016년까지 3년 연차사업으로 추진된다. 국비 40억원과 시비 18억원 모두 58억원이 투입돼 부지 1만㎡에 건축 연면적 66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센터가 설립되면 방사선 의료기기 안전성 향상과 함께 의료방사선 기술 개발과 방사선 진단 및 치료 효율성 개선, ‘의료한류’(Medical Korea) 가속화 등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 수조원 대에 이르는 세계 방사선 의료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짐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와 협회는 센터 설립을 마치고 2단계로 2015년 ‘방사선 성능평가 및 인증센터’ 사업을 정부로부터 승인받아 센터 부지 내에 이를 추가로 설립할 계획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순창군,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이달말까지 홈페이지서 접수

순창군은 행복하고 활력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펼치기 위해 ‘제1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참가마을을 이달말까지 공모한다.

이번 콘테스트는 시·군 분야와 마을분야(경관·환경, 체험·소득, 문화·복지)로 나눠 진행한다.

군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도 심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중앙콘테스트에 출전하게 된다.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는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해 시·군간, 마을간 선의의 경쟁과 학습으로 행복하고 활력있는 마을을 만들어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신청은 홈페이지(contest.raise.go.kr)에 접속해 공모일정과 심사기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 후 우리마을의 자랑거리와 활동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된다.

신청은 홈페이지(contest.raise.go.kr)에 접속해 공모일정과 심사기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 후 우리마을의 자랑거리와 활동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된다. 수상마을은 포상금 및 정부포상,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전국민 홍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 활용될 계획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군산 설립도서관 ‘동화·소설쓰기’ 강좌

군산시 설립도서관은 한국도서관협회 주관의 2014 문학작가 파견 사업에 선정돼 오는 12월부터 5개월간 ‘내 생애 첫 동화·소설 쓰기’ 강좌를 개설한다.

문학창작에 관심이 많은 성인 25명을 대상으로 여는 이번 강좌는 매주 화·목요일(오전 9~12시) 설립도서관 교양문화실(2층)에서 진행한다.

이준호 동화작가의 지도로 동화와 소

설창작을 위한 이론 및 글쓰기 방법과 지역문화 콘텐츠로 활용할 소재를 찾기 위한 현장답사(4회) 등의 내용으로 운영된다.

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0일까지 전화 및 방문, 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gunsan.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 설립도서관(063-454-5703) /군산=박근욱기자·전북취재본부장

★4성급★
호텔건물매매

- 현재 노인요양시설 허가 취득
- 엘리베이터 설치 및 리모델링공사 완료
- 목포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위치
- 4성급호텔, 노인병원 등 즉시 사업가능 (카피숍은 휴업중)
- 주차장 및 부속상가 건물 3동

· 한국건설원 감정가보다 20% 감액 매매 예정
· 매매가격 상당 후 결정
· 현장 답사 요망

목포시 대의동 2가 1-9번지의 3필지(지상 9층 지하 1층)
토지면적 3,478㎡(1,054평)/건축연면적 7,091㎡(2,149평)

연락처 010-9823-7781, 010-9696-8701

NAVER **다비플라워** 농협(박배성) 302-0316-649511

축하와환3단 근조와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저렴한 공장용지
일반공업지역 공장용지
물류창고부지 최적

·면적 : ① 39,600㎡
② 23,600㎡
·매가 : 3.3㎡ 당 90만
◎분할도 매매 가능◎

최고의 전원주택지
서구 세하동 최고 요지
정남향 앞도로 접, 조망권 최고!!

·지역 : 1종 주거지역
·지목 : 전 및 대지,
·면적 : 1917㎡
·매가 : 3.3㎡당 120만

투자 유망
무안군 운남면 내리 확대한 절경의 해변

·지역 : 계획관리지역
·지목 : 전 및 대지,
·면적 : 13,939㎡
·매가 : 4억 6천

행운(구 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송창석
011-642-7777

收益 **33.3% 호텔**
“급매매”

대지 6,600㎡, 건평 2,192㎡
객실 48개, 지하수, 심야전기
2013년 리모델링 완료
최고급 럭셔리 호텔급 시설
지역 독점상권, 접근성 최고!

-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 매출 장부확인 및 계약부조건 가능
- 3년 운영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

- 매가 33억 (용자 15억), 현금 18억
- 가격 절충 불가, 실수요자만 문의 바람

신세계공인중개사사무소
문의전화 010.5188.5515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